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 성료

김규원 귀뚜라미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가 가스사업 종사자, 산자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SK가스 김세광 대표이사가 LP가스 산업발전과 가스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철탑산업훈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장석웅 기술안전이사, 산업포장은 경남에너지(주) 정연욱 대표이사, (주)투데이에너지 김완진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단체부문에서는 금호석유화학 여수합성 고무공장과, 경상북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우리 업계에서는 귀뚜라미보일러 김규원 대표이사가 가스안전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귀뚜라미보일러 김규원 대표이사가 수상한 가스안전 유공자 대통령표창은 그동안 가스보일러 부품 국산화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국내 최초로 가

스누설 감지 안전시스템이 내장된 가스보일러와 2 Pass 구조로 열효율을 향상한 가스보일러를 생산 공급해 보일러 무사고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여 수상하게 됐다.

전체적인 포상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신 104명, 기업, 지자체 등 7개 단체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부대 행사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 화재 사고 분석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사고조사 시스템 방안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남규 실장이 '한국의 사고조사 현황과 조사기법 발전 방향'을 비롯해 Texas A&M대학의 Sam Mannan 교수 '미국의 최근 사고사례 분석 등 해외석학들의 연구 내용이 발표돼 소방서, 경찰서, 사고조사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